패션 희생자의 스타일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셀러브리티를 중심으로-

주신영 · 하지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A Study on Styl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Fashion Victims -Focus on Korean Celebrities-

Shinyoung Joo · Jisoo Ha[†]

Rese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접수일(2013년 12월 30일), 수정일(2014년 1월 27일), 게재확정일(2014년 2월 3일)

Abstract

This study classifies types of fashion victims and identifies an internal value system that works for their fashion selection. This study reviewed the definition of 'fashion victim' by tracing similar terms such as fashion terrorist, fashion loser, and worst dresser. We classified fashion styles of fashion victims into four types based on an analysis of articles that pertained to Korean celebrities' fashion and image data. The first type is the fashion style of those who dress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body shape. The second type is the style for those who have little consideration in regards to personal image. The third type is the style of those who choose a fashion with excessive decoration. The fourth type is the style for those who use too many fashion items at the same time. Based on a consistent analysis of fashion styles, this study identified the internal value system believed to be working in fashion victims' fashion selection. This study presents three internal value system characteristics. The first is the fetishism that is revealed when fashion victims wear expensive clothes or fashion items that are believed to reveal their personal identity and social status. The second is the blindness which becomes apparent when they follow a fashion in vogue indiscriminately without considering a personal image or body shape. The third is an excessiveness shown when individuals select clothes with too many beads or feathers that are decorative and rich in volume.

Key words: Fashion victim, Korean celebrity, Fetishism, Blindness, Excessiveness; 패션 희생자, 한국 셀러브리티, 몰신성, 맹목성, 과도성

I. 서 론

현대 사회의 대중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패션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어떤 특정한 시기에 있어서 패션의 지배적인 경향이나 유행에 대한 정보는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진 연예인, 정치인,

스포츠 스타 등을 가리키는 셀러브리티(Celebrity)를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빈번하다(Ko & Kwak, 2011). 셀러브리티들은 대개 대중에게 노출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 사이에서 본인이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가진 인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패션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도 한다. 때로는 패션 광고의 주인공이 되거나 간접적인 광고 효과를 노린 패션 기업의 협찬을 받기도 하

[†]Corresponding author

E-mail: jisooaha@snu.ac.kr

면서 현대 패션 산업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패션 스타일은 매스 미디어가 셀러브리티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빈번하게 다루는 주제이며, 그런 미디어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패션 잡지의 에디터나 패션 전문가에 의한 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들의 평가결과에 의해 셀러브리티들은 ‘베스트 드레서(Best dresser)’라는 찬사를 듣기도 하고, ‘패션 희생자(Fashion victim)’라는 오명을 얻기도 한다. 대중들은 옷을 멋지게 차려입은 베스트 드레서를 추앙하고 그의 옷차림을 따라하고 싶은 욕망을 느끼지만, 패션 희생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옷을 보기 좋게 입지 못했다는 평가를 넘어 해당 인사의 지적 수준이 낮다든가 정상적이지 않은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비난의 시선을 보낸다. 대중들이 단순한 패션 스타일에 대해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패션이 그만큼 인간의 삶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패션 희생자들의 패션 스타일에 대한 연구도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탐구의 한 부분으로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최근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Schiermer(2010)는 일반인을 중심으로 패션 희생자들을 연구하였는데, 그는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개성화와 탈개성화 사이의 균형문제에 패션 희생자에 대해 접근하였다. 이 연구는 패션의 역동성을 설명하고 패션 희생자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패션 희생자들의 패션 스타일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한 가지의 주목할 만한 선행연구로서, Boden(2006)은 셀러브리티들의 영향으로 맹목적으로 유행을 따르는 청소년들에 관해 분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의 패션 아이템을 단순히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패션 희생자에 관한 깊이 있는 분석으로까지 나아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아직 패션 희생자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셀러브리티들 중에서 ‘위스트 드레서(Worst dresser)’, ‘패션 루저(Fashion loser)’, ‘패션 테러리스트(Fashion terrorist)’ 등으로 불리는 ‘패션 희생자’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패션 희생자의 스타일 유형을 분류하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내적 가치 체계의 특성을 분석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 패션 문화에서 학술적으로 연구가 되지 않은 패션 희생자의 개념에 주목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희생자와 유사하게 쓰이고 있는 패션 테러리

스트, 패션 루저, 위스트 드레서를 정의내린다. 이를 바탕으로 패션 희생자의 개념을 정립한다. 둘째, 사례연구를 통하여 국내 셀러브리티들의 이미지 자료에서 보이는 패션 희생자의 스타일 유형을 분석한다. 셋째, 패션 희생자의 스타일 유형을 바탕으로 그들의 패션 선택 행위의 기저에 작용하고 있는 내적 가치 체계의 특성을 고찰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으며, 문헌연구로는 패션 희생자 관련 논문, 국내의 단행본, 인터넷 및 전문서적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사례연구를 위해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포털사이트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www.naver.com, www.daum.net 등의 검색기를 이용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 셀러브리티들의 패션 스타일을 평가한 기사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은 대상에만 한정하여 총 104점의 이미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석사 이상의 전문가 5명과 함께 수행한 104점의 이미지 자료에 대한 선별 작업을 통해 본 연구와 연관성이 높은 총 37장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작업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37장의 이미지에 대하여 10장의 이미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의류학을 전공한 30명에게 5점 Likert 척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분석한 결과, 크로바하 알파 0.646으로 나타나 추출된 37장의 이미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II. 이론적 배경

1. 한국 셀러브리티 패션 스타일

셀러브리티는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진 인물로 연예인, 정치인, 스포츠 스타 등을 포함하며 ‘스타’라는 용어와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Ko & Kwak, 2011). 20세기 초 할리우드 영화의 인기 있는 여배우를 일컫는 단어인 ‘스타’는 최근 그 의미가 확대되어 인지도가 높은 유명 인사나 사회적으로 우상이 되는 인물들을 포함한다. 스타는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와 여가의 증가로 영화 등의 문화 산업이 발전하면서 탄생되었으며, 이들은 주요한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고 패션 분야에 있어서도 트렌드를 창조하는 핵심요소가 되었다.

한국은 20세기 말 대기업이 영화계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상업영화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영화 산업의 성장으로 우상을 받는 스타들이 탄생하였으며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이들의 패션 스타일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가수 이지연, 배우 김혜자, 노주현, 장미희 등을 시작으로 1990년대 배우 김혜수, 신은경 등이 패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2000년대 이후, 대중들은 연예인이 착용하는 패션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구매함을 통해 셀러브리티들의 패션 스타일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셀러브리티들의 패션 스타일은 매체를 통해 노출됨에 따라 대중의 관심을 끌었으며 이는 모방심리를 자극하여 명품에 대한 열망과 소비를 자극하는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Kim & Lee, 2011). 즉, 이러한 모방심리로 인해 패션 스타일을 넘어서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도 모방하려는 워너비(Wanna-be) 현상을 일으켰으며, 절약하는 소비 문화가 아닌 명품에 대한 과도한 소비를 이끌어 내어 모조품을 탄생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신상품에 대한 집착을 만들어 ‘신상녀’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한국 셀러브리티들의 패션 스타일은 패션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트렌드를 창조한다는 긍정적인 면모도 있지만, 모조품을 만들어내고 새로 나온 명품에 대한 집착을 만들어 과도한 소비를 이끄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진다.

2. 패션 희생자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패션 희생자의 개념

패션 희생자는 ‘유행하는 스타일’을 내포하는 ‘fashion’과 ‘희생자’를 의미하는 ‘victim’이 합성된 단어로서 사전적 의미로는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데도 언제나 최신 유행을 따르는 사람”을 뜻한다(Wehmeier, 2009).

사실, 패션 희생자라는 말은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다. 독일 철학자 Immanuel Kant는 ‘무턱대고 유행을 따르는 사람’을 뜻하는 독일어 “Modenarr”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고, 현대에도 그러한 뜻은 크게 변하지 않아서, 패션잡지 W의 편집자 John Fairchild는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잘못 안내 받은 사람들”이라고 정의하였고, Simmel은 “다른 시대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 관찰된 한계를 넘어서는, 패션 경향 안에서의 과도함”이 유행의 희생자라고 말하였다(Schiermer, 2010). 이처럼 과도한 패션을 추구하는 이들을 가리켜 패션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란 뜻에서 ‘패션 희생자’라는 표현을 쓰며, 디자이너 Oscar de la Renta는 자신만의 스타일의 경계가 없이 계절과 브랜드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 이들을 패션 희생자라 하였다(H. K. Kim, 2012). 또한 디자이너 Versace는

스타일이 계절에 따라 너무 많이 변하게 될 때 패션 희생자가 된다고 말하였다(“Fashion victim”, 2013).

패션 저널리스트인 Lee(2003)는 패션 희생자들을 많은 돈을 소비했지만 스타일이 좋지 않은 사람들, 욕심을 탐하거나 낭비하는 사람들, 상표를 복종하는 사람들이라 말하였다. 또한, Shin(2010)은 개성 없이 고가의 브랜드라는 이유로 혹은 옷 입는 감각을 갖추지 못하여 한 브랜드의 마네킹에 디스플레이되어 있는 모든 의상과 소품을 다 사버리는 사람을 패션 희생자라 칭하였으며 이들은 유행하는 아이템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분수에 넘치는 아이템을 구매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패션 희생자란 많은 돈을 투자하고 브랜드나 유행을 좇고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옷들을 구매하는 사람으로 타인이 보기에 과장됨이 느껴지는 사람들로 정의내릴 수 있다.

2) 패션 희생자의 유사 용어

패션 희생자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는 흔히 쓰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대중매체에서 접할 수 있는 용어이다. 대중매체들은 패션 희생자와 같거나 혹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지만 이 말보다 좀 더 강한 느낌을 가지는 어구를 사용할 때가 많은데, 예를 들어 ‘패션 테러리스트’나 ‘패션 루저’, 혹은 ‘위스트 드레서’와 같은 말들이 흔히 쓰이고 있다. 이 용어들의 의미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패션 테러리스트(Fashion terrorist)

테러리스트의 ‘테러’라는 단어의 어원은 불어의 ‘공포(Terreur)’에 있다. 프랑스 대혁명기에 로베스피에르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극악한 폭력을 통해 대중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려 했던 것에서 기원한 말로서, 정치, 종교, 사상적 목적을 위해 폭력적 방법을 통해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정치가 아닌 다른 상황에서도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도 테러라 부른다(“Terrorism”, 2013). 매스 미디어에서 흔히 사용되는 패션 테러리스트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흔히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상하거나 지나치게 꾸며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거나 헤어스타일을 가지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Fashion terrorist”, 2011a),” 혹은 “어떠한 판단 없이 옷을 미스매칭한 사람 혹은 패션의 기본적인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Fashion terrorist”, 2011b)”을 일컫는다. 패션 테러리스트에 대한 다른 관점의 정의도 있는데, Hyeon(2012)은 패션이 자신을 대변하기는커녕 자기 일에 손

상을 입힌다면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든 테러리스트라는 단어가 가지는 공격적인 어감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 볼 때, 패션 테러리스트란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평온한 감성에 상처를 낼 정도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으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2) 패션 루저(Fashion loser or luser)

루저는 일반적으로 ‘패배자’라는 뜻이다. 사회적 관점의 의미를 살펴보면 루저란 “사회 계층에서 낙오된 사람을 말하며 사회 계층의 가장 높은 곳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Loser”, 2005). 하지만, 우리가 미디어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루저(Luser, Luzer, Luzzer)는 심하게 짜증스럽거나, 멍청한 누리꾼을 지칭하는 인터넷 신조어이다(McFedries, 2001).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1월 <미녀들의 수다>라든 프로그램에 등장한 한 여성 패널리 “키가 180cm 이하인 남자는 루저”라고 말한 것이 이 용어 사용의 시초였고, 현재는 키가 아닌 사회적인 능력에서도 열등한 경우도 ‘루저’라고 부른다(“Korean internet neologism”, 2013). 이런 개념들을 정리해 보면, 패션 루저란 유행의 패배자, 옷을 입는 능력이 열등한 사람을 일컫는다.

(3) 워스트 드레서(Worst dresser)

워스트는 ‘최악의, 가장 부적당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이다. 그래서 워스트 드레서의 문자적 의미는 최고로 부적당하게 옷을 입는 사람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패션과 관련하여 이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좀더 구체적인 의미는 반의어인 베스트 드레서(Best dresser)의 정의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베스트 드레서’란 “복장에 항상 신경을 쓰고 가장 감각적으로 뛰어나며 더욱이 몸가짐과 대화, 교제 등에 있어서도 스마트함, 고귀함, 질의 높음 등의 특성을 갖춘 사람”을 가리킨다(The compilation committee of fashion professional material dictionary, 1997). 이런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워스트 드레서란 자신의 신체적 단점을 숨기지 못하고 TPO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거나 전체적인 스타일에 있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3) 패션 희생자의 특성

위에서 정리해 본 패션 희생자라든가 이와 유사한 다른 용어들은 의미가 명확히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용어들이 매스 미디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례를 살펴보면, 그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나 초점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쓰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용어들이 어떤 환경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맥락의 기저에 패션 희생자들과 ‘일시적 유행(Faddishness)’이 연관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일시적 유행’을 의미하는 패드(Fad)는 ‘하루 동안’을 축약한 패션 용어로서 단기간에 걸쳐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스타일을 말한다(H. K. Kim, 2012).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패드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한정된 좁은 지역에 유행되는 것”, “그 소수의 집단이나 유행 현상 자체가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 기이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유행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The compilation committee of fashion professional material dictionary, 1997). 패션 희생자들은 대개 이러한 일시적 유행을 추종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패션 희생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이들이 주로 물질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질주의’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이거나 물질에 의존한다는 철학적 논제(Lee, 2007)로서 패션에서는 디자이너, 브랜드를 숭배하다 못해 자신의 정체성을 고가의 디자이너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H. K. Kim, 2012). 즉, 패션 희생자는 일시적 유행과 물질주의에 취약하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유행을 따르고 고가의 브랜드를 따라가며 타인이 볼 때 과도하다고 느끼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III. 한국 셀러브리티 패션 희생자의 스타일 유형

셀러브리티들의 패션은 항상 대중의 주요한 관심 대상이며 이는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대중매체들은 각종 행사에 참석한 셀러브리티들의 패션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는 한국 셀러브리티 패션 희생자의 스타일을 분석하기 위해서 대중매체 기사를 검색해서 분석자료를 얻었다. 본 장의 고찰을 위한 자료의 선정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공식석상에 나타난 국내 셀러브리티들의 이미지 총 37점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셀러브리티들이 지나치게 유행을 따르거나 욕심이 앞서 개인의 체형이나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은 스타일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디자인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디자인을 선택하거나 무분별하게 많은

가지 수의 아이টে임을 패션에 도입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이미지들과 비평가들의 평가에 관한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 셀러브리티 패션 희생자들의 스타일 유형을 개인 체형을 무시한 스타일, 개인 이미지를 무시한 스타일, 과도하게 장식한 스타일, 과도하게 아이টে임을 착용한 스타일이라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1. 개인 체형을 무시한 스타일

패션 희생자의 스타일 유형의 첫 번째는 개인의 체형을 무시한 스타일이다. 패션은 개인의 체형에 맞아야 하고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서 착용해야 한다. 그렇지 못했을 때의 결과는 패션 희생자로 지목되는 것이다.

그 예로 부천국제영화제에서 하늘색 미니 드레스를 착용한 배우 최송현<Fig. 1>을 들 수 있으며, 그녀의 하늘색 미니 드레스는 가슴과 허리 부분에 디테일이 부각되어 있어 여성미를 표출할 수 있는 바디 라인을 은폐시키고 언밸런스한 치마 자락은 배우의 신체적인 단점인 작은 키와 통통한 다리를 부각시키고 있다(Lee, 2012). 이와 마찬가지로, 배우 최정원의 언밸런스하고 엉성한 길이를 가진 드레스<Fig. 2> 역시 다리를 짧아 보이게 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았다(Jeong, 2008). 또한, 한효주

의 H라인 드레스<Fig. 3>, 전지현의 롱 원피스<Fig. 4>와 박한별의 배기팬츠<Fig. 5>는 배우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장점인 각선미를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의상을 통하여 가리게 되었다. 레깅스 배기팬츠는 박한별의 다리를 굵고 짧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며, Kim(2012b)은 전지현의 롱 원피스에 대해 드레시하지도 않은 어정쩡한 스커트의 볼륨은 더욱 어색한 느낌을 자아낸다고 지적하였다. 배우 이아현<Fig. 6>의 날씨와 어울리지 않은 충천연색의 미니 드레스는 다소 평퍼짐해 보이는 역효과를 낳았다. 배우 장서희의 하얀 드레스<Fig. 7>에 대해 Lee(2012)는 건강미 넘치는 구릿빛 피부와 의상이 어울리지 않으며 풍성한 앞머리와 뒤로 묶은 헤어스타일은 동그란 얼굴을 더욱 동그랗게 보이게 한다며 부조화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보영의 하얀 드레스<Fig. 8>와 안혜경의 블랙 드레스<Fig. 9>를 살펴보면 <Fig. 8>은 어색한 네크라인의 위치가 목을 짧게 보이고 어깨는 넓어 보이는 효과를 만들며(Kim & Won, 2013), <Fig. 9> 역시 얇은 어깨끈과 넓은 가슴 선에 의해 어깨가 넓어 보이고 팔이 굵어 보이는 결과를 초래했다(Song, 2008c). 탤런트 변정민의 매탈릭한 실버 소재로 만들어진 롱 드레스<Fig. 10>는 그녀의 실루엣을 살려주지 못했으며 상의 부분은 부하고 스커트 부분은 몸에 딱 맞는 부조화로 몸이 더 육중해보였으며, 가운데 가르마는 얼굴이 크고 동그랗게 보였다(Song, 2008a).

Fig. 1. Choi Song Hyeon's blue dress.
From Lee, (2012).
<http://news.sportsseoul.com>

Fig. 2. Choi Jeong Won's mini dress.
From Jeong, (2008).
<http://nownews.seoul.co.kr>

Fig. 3. Han Hyo Joo's H-line one piece.
From Kim, (2012b).
<http://bntnews.hankyung.com>

Fig. 4. Jeon Ji Hyeon's long one-piece.
From Kim, (2012b).
<http://bntnews.hankyung.com>

Fig. 5. Park Han Byeol's leggings baggy pants.
From Choi, (2011b).
<http://stylem.mt.co.kr>

Fig. 6. Lee A Hyeon's mini dress.
From Choi. (2011b).
<http://stylem.mt.co.kr>

Fig. 7. Jang Seo Hui's white dress.
From Lee. (2012).
<http://news.sportsseoul.com>

Fig. 8. Lee Bo Yeong's white dress.
From Kim and Won. (2013). <http://isplus.livejoins.com>

Fig. 9. An Hye Gyeong's black dress.
From Song. (2008c).
<http://news.sportsseoul.com>

Fig. 10. Byun Jeong Min's silver dress.
From Song. (2008a).
<http://news.sportsseoul.com>

이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셀러브리티들이 자신의 피부 색깔과 어울리지 않은 의상을 고르거나, 의상과 헤어스타일, 얼굴 모양이 어울리지 않거나, 키나 체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패션을 선택하고 치장하여 신체적 단점을 부각시키거나, 장점을 살리지 못할 때 관객들의 반응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들은 패션 희생자로 분류될 수 있다.

2. 개인 이미지를 무시한 스타일

패션 희생자의 두 번째 스타일 유형은 개인 이미지를 망각한 채 옷을 입은 스타일이다. 한 개인의 이미지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간을 두고 변할 수 있다. 그러나 패션에 있어서 그 변화의 정도가 갑작스럽고 지나치게 심하다거나, 기존 이미지의 긍정적인 측면을 손상시킨다면 지켜보는 이들에게 그들의 스타일은 불편하고 어울리지 않는 패션이다. 이러한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은 패션 희생자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면, 황정음<Fig. 11>은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 시사회 장에 그녀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링을 하고서 나타났다. Kim(2012b)은 그녀의 복고풍 블라우스, 데님 와이드 팬츠와 곱슬곱슬한 머리는 너무나 구태의연해 보이며 그녀의 상큼하고 발랄한 모

습을 보고 싶다는 갈증을 느끼게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평소 여성스럽고 귀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남규리는 섹시함을 강조하려다 패션 희생자가 되었다. 남규리의 블랙 튜브 드레스<Fig. 12>와 가슴이 드러나는 핑크 드레스<Fig. 13>를 살펴보면, Song(2010b)은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남규리와 강렬한 망사 장식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H. S. Kim(2012)은 가슴의 볼륨을 너무 강조하는 스타일로 보기에 부담스럽다고 평가했다. <Fig. 14>는 2008년 대한민국영화대상에서 손예진이 입은 뉴욕 디자이너 Donna Karan의 와인색 민소매 드레스이다. 이에 대해 Song(2008d)은 자신의 이미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위적인 드레스를 선택하여 손예진의 매력적인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드레스 치수가 큰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배우 손예진이 자신과 어울리지도 않고, 크기도 맞지 않은 드레스를 선택한 것은 브랜드에 대한 맹목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주지훈의 빈티지한 블랙 가디건<Fig. 15>과 점프수트<Fig. 16> 그리고 <Fig. 17>의 박용하의 빈티지 스타일은 이들의 평소 깔끔한 이미지와 달리 험령한 통바지, 군화, 덥수룩한 수염으로 인해 지저분한 인상을 준다는 혹평을 받았다(Lee, 2009).

위의 예에서처럼 평소 자신의 이미지와 지나치게 다른 스타일의 패션이나, 평소의 긍정적 이미지를 손상시

Fig. 11. Hwang Jeong Eum's blouse and wide pants.
From Kim. (2012b). <http://bntnews.hankyung.com>

Fig. 12. Nam Gyu Ri's black dress.
From Song. (2010b). <http://sportsseoul.com>

Fig. 13. Nam Gyu Ri's pink dress.
From H. S. Kim. (2012). <http://bntnews.hankyung.com>

Fig. 14. Son Ye Jin's red dress.
From Song. (2008d). <http://sportsseoul.com>

Fig. 15. Joo Ji Hun's black cardigan.
From Lee. (2009). <http://sportsseoul.com>

Fig. 16. Joo Ji Hun's black jump suit and jacket.
From Lee. (2009). <http://sportsseoul.com>

Fig. 17. Park Yong Ha's vintage style.
From Lee. (2009). <http://sportsseoul.com>

킬 정도의 과격적인 스타일의 패션은 그 옷을 선택한 착용자를 패션 희생자로 전락시킬 수 있다.

3. 과도하게 장식한 스타일

패션 희생자의 세 번째 스타일은 과도하게 장식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셀러브리티들은 개성을 넘어서 장식식이 지나친 의상을 입음으로써 자신의 매력을 오히려 떨어뜨린다.

예를 들면, 배우 한지혜<Fig. 18>는 디자이너 Vera Wang의 명품 드레스를 입고 3,400만 원짜리 클러치백을 들고 나타났으며, 이는 과시적인 사치성향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Kim and Won(2013)은 드레스의 아래 부분이 ‘거대한 세차 기계의 브러시 같다’는 평을 하였으며, 가수 소녀시대의 멤버인 유리<Fig. 19>에 대해서도 드레스 자락의 구슬 장식이 과한 것이 흠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배우 김윤진<Fig. 20>과 김아중<Fig. 21>이 선택한 깃털 드레스에 대하여 Choi(2010)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튀었고, 짙은 회색에 깃털로 장식된 의상은 과감한 할리우드 스타일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Song(2008b)은 정체불명의 보라색 깃털 드레스를 선택한 김아중의 스타일에 대해 여기저기 정신없이 장식된 보라색 깃털은 무겁고, 은색 조각 장식은 산만해 보였다

고 지적하였다. 가수 씨엘의 모피 볼레로<Fig. 22>는 개성 넘치기보다는 과도하다는 느낌을 주고 챔피언 벨트와 곰이 매달려있는 것처럼 보이며(Song, 2009c), 과한 실루엣의 모피 볼레로는 그녀가 패션 희생자로 지목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효리의 파랑 벨벳 탑<Fig. 23>은 유행하는 파워숄더의 끝을 세운 의상으로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평가받았으며(Song, 2009b), 맹목적으로 유행을 추종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윤은혜의 블랙 드레스<Fig. 24>는 사치성을 잘 보여주는 의상으로, Louis Vuitton 2009년 F/W 컬렉션이다. 이는 퍼프의 과장됨으로 충분한 의상이었지만, 바닥에 끌릴 듯 긴 리본은 여성스럽기보다 지저분해 보였으며 명품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경우라는 혹평을 받았다(Song, 2009a). 배우 강예원의 인어 같은 윤곽선을 가진 드레스<Fig. 25>는 구미호의 꼬리를 연상시키고 과도한 가장자리 주름 장식은 치마 단에 생크림을 뿌린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평을 받았으며(Hong, 2011), 변정수의 깃털 장식이 있는 블랙 드레스<Fig. 26>는 가슴 부분의 베이지색 깃털이 타조의 등지 같다는 평을 받았다(Choi, 2011a). 청룡영화제에 참석한 배우 남규리<Fig. 27>는 지나치게 장식성이 강한 드레스로 거추장스러운 느낌을 줬고, 화려함만으로 눈길을 끌었으며(Choi, 2011a), 서우의 하얀 드레스<Fig. 28>는 깃털이 절반 이상 튀어나와 있고 깃털

Fig. 18. Han Ji Hye's black dress.
From Kim and Won. (2013). <http://isplus.livejoins.com>

Fig. 19. Yu Ri's white dress.
From Kim and Won. (2013). <http://isplus.livejoins.com>

Fig. 20. Kim Yun Jin's fur dress.
From Choi. (2010). <http://starin.edaily.co.kr>

Fig. 21. Kim A Jung's purple dress.
From Song. (2008b). <http://news.sportsseoul.com>

Fig. 22. CL's fur bolero.
From Song. (2009c). <http://news.sportsseoul.com>

Fig. 23. Lee Hyo Ri's blue velvet top.
From Song. (2009b). <http://news.sportsseoul.com>

Fig. 24. Yoon Eun Hye's black dress.
From Song. (2009a). <http://news.sportsseoul.com>

이 음성등성 박혀 우아함보다는 산만한 느낌이 강했다 (Song, 2010a). 또한, 황신혜의 레이스 시스루 드레스 <Fig. 29>는 과격이 아니라 충격이라는 느낌을 전했으며(Kim, 2012a), 유선의 블랙 드레스<Fig. 30>는 얼굴 라인까지 올라오는 목 부분의 레이스 장식이 마녀를 연상케 한다(Choi, 2011a).

이런 여러 가지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장식은 패션 착용자에 대한 시선과 패션 자체에 대한 시선을 분리시키며 우스꽝스러운 느낌을 자아내기도 하며 비웃음을 유발한다. 결과적으로 본인과 어울리지 않는 패션이라는 느낌을 가진다면 패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4. 과도하게 아이템을 착용한 스타일

패션 희생자의 마지막 스타일 유형은 과도하게 아이템을 착용한 스타일이다. 스타일링에 있어 포인트는 하나로 충분하지만, 이들은 시선을 주목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여러 개 선택한 스타일로 패션 희생자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 채정안<Fig. 31>은 호피무늬 모피코트에 핑크색 원피스를 받쳐 입었으나 모피 코트가 단색이거나 원피스가 가라앉은 색조였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평을 들었다(Kim, 2013b). 슈퍼스타K 출신의 김소정<Fig. 32>의 패션에 대해 Choi(2011b)는 회색 원피스와

화려한 레깅스, 담요를 두른 듯한 상의는 전체적으로 과하고 답답한 느낌을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가수 백지영의 가죽 재킷과 드레스<Fig. 33>는 너무 많은 포인트로 요란하기만 할 뿐 세련미는 전혀 없었으며 붉은색 장식이 박힌 가죽 재킷은 의상의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Song, 2009c). 또한, 배우 김혜은<Fig. 34>과 방송연예인 김나영<Fig. 35>도 과도하게 많은 패션 아이템을 착용하였으며, 김혜은의 스타일은 기하학적 디자인의 신발과 바디 라인을 드러내는 흰색 드레스로 시선을 분산시켰지만 하나쯤은 힘을 빼도 좋았을 것이라는 평을 들었다(Kim, 2013a). 또한, 김나영의 과도하게 레이어드한 스타일도 짧은 머리 모양과 큰 선글라스로 시선을 끄는 데 성공하기는 했지만 조금 지나친 면이 있으며, 폴리에스터 소재의 기모노 가운과 누비로 장식한 재킷의 조합은 어딘가 어수선했던 느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Colorful spring”, 2013). 그녀가 착용한 큰 선글라스, 큰 목걸이, 레이어드하는 스타일링은 유행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배우 이하늬의 스타일<Fig. 36>과 채림의 파란 드레스와 롱부츠 스타일링<Fig. 37>은 지나치게 많은 패션 아이템의 부조화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하늬의 스타일은 보고만 있어도 답답하며, 중간 길이 스커트, 끈 달린 신발, 캔디백은 부조화의 극치라고 평가받았다(“Colorful spring”, 2013). Song(2008a)은 채림의 스타

Fig. 25. Kang Ye Won's frill dress.

From Hong. (2011). <http://reviewstar.hankooki.com>

Fig. 26. Byun Jeong Su's black dress.

From Choi. (2011a). <http://style.mt.co.kr>

Fig. 27. Nam Gyu Ri's white dress.

From Choi. (2011a). <http://style.mt.co.kr>

Fig. 28. Seo U's white dress.

From Song. (2010a). <http://news.sportsseoul.com>

Fig. 29. Hwang Sin Hye's see-through dress.

From Kim. (2012a). <http://bntnews.hankyung.com>

Fig. 30. Yoo Seon's black dress.

From Choi. (2011a). <http://style.mt.co.kr>

Fig. 31. Che Jeong An's leopard coat.

From Kim. (2013). <http://isplus.livejoins.com>

Fig. 32. Kim So Jeong's dark shawl.

From Choi. (2011b). <http://style.mt.co.kr>

Fig. 33. Back Ji Yeong's black dress.

From Song. (2009c). <http://news.sportsseoul.com>

Fig. 34. Kim Hye Eun's white dress.

From Kim. (2013a). <http://isplus.livejoins.com>

Fig. 35. Kim Na Yeong's quilted jacket.

From Colorful spring. (2013). <http://isplus.livejoins.com>

Fig. 36. Lee Ha Nui's navy onepiece.

From Colorful spring. (2013). <http://isplus.livejoins.com>

Fig. 37. Che Rim's blue dress.

From Song. (2008a). <http://news.sportsseoul.com>

일링에 대해 시원한 민소매 드레스로 시선을 끌려고 하였지만 앞트임이 있는 치렁치렁한 스커트에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검은색 롱부츠는 보는 이를 산만하고 어지

럽게 한다는 혹평을 하였다.

앞의 예에서 보았듯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패션 아이템을 강제로 결합시키거나 지나치게 많은 수의 패션 아

이템을 사용하게 되면 패션 이미지의 통일성을 무너뜨리게 된다. 그리고 또, 이런 패션은 보는 이의 시선을 산만하게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 패션 착용자와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의 패션 스타일을 형성하게 된다.

지금까지 고찰해본 패션 희생자들의 스타일 유형들은 맹목적으로 유행과 브랜드를 추구하는 성향과, 값비싼 의복을 착용하여 과시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4가지로 도출된 스타일 유형들을 범주화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1).

IV. 패션 희생자의 내적 가치 체계의 특성

한국 셀러브리티 패션 희생자의 유형분석을 통해 살펴본바와 같이, 패션 희생자들은 자신의 체형을 무시하거나 대중들에게 심어준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파괴하는 패션 선택을 주저하지 않는다. 때로 이들은 지나친 장식의 하거나 한꺼번에 많은 아이템을 패션에 도입하여 스타일상의 부조화를 일으킨다.

패션 희생자들이 이렇게 불합리한 패션 행동을 하게 하는 근본적 동인(動因)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정칙(精緻)한 답변은 패션 소비에 대한 행동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적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지만, 여기서는 패션 희생자들의 패션 선택 행위의 내면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먼저, 패션 희생자들에게는 그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습관, 경험, 지식 등을 통해 형성된 내면적 특성이 있으며 그 내면적 특성의 발현에 의해 자신과 자신이 선택한 패션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거나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게 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앞서 열거한 바 있는 한국 셀러브리티 패션 희생자들의 불합리한 패션 선택 행위에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면적 혹은 심리적 상태를 유추해 보면, 크게 물신성, 맹목성, 과도성이라는 세 가지의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패션 희생자의 사례고찰을 통해 도출된 내재된 첫 번째 특성으로 물신성을 들 수 있다. 물신성(Fetishism)은 원래 어떤 사물에 내재적 가치나 권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이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졌다고 믿는 물건을 숭배하던 종교적 관습에서 유래한 것이다. 마르크스에 의해 발전된 개념인 상품 숭배(Commodity fetishism)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물건과 물건의 관계와 같은 사회적인 관계들이 물질적 의존관계로 변화함에 따라 상품, 자본, 화폐와 같은 인간노동의 생산물을 숭배의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는 오로지 상품과 화폐에 의해 매개될 뿐 사람들은 다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구매하는 화폐나 상품이 인간관계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믿게 되며, 더 나아가 상품의 구매나 소비를 통해서만 그가 속한 사회 내에서의 정체성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패션 희생자에 나타난 물신성은 <Fig. 14>, <Fig. 18>, <Fig. 24>과 같이 Donna Karan, Vera Wang, Louis Vuitton의 의상을 입거나 고가의 클러치를 드는 것에서 표출되었다. 이는 Kim(2007)이 지적했듯이 부유층이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 다른 계층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 고가의 상품을 소비하는 과시형 소비이며, 본질적으

Table 1. Style types of fashion victims

Style types	Fashion victim images
Style disregarding personal body sha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cealing the feminine body line by wearing clothes with excessive details · hiding merit of the body with broad and roundish clothes · lack of harmony with skin color and hair style
Style disregarding personal 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ding vigorous image due to boorish styling · focusing on sexiness even when having a cute or feminine image · losing femininity with avant-garde luxury dress · losing a smart image with vintage clothing
Style taking excessively decorative cloth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udicrous when wearing a luxury dress · heavy and diffuse with excessive feather decoration · too much splendor with excessive decoration
Style using excessive number of fashion it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th of the tiger-skin-patterned fur coat and the pink-colored one piece dress is too prominent · excessive and stuffy with too many fashion items · disharmonious among fashion items · too many eye catching items

Table 2. Characteristics of fashion victim's behavior

Characteristics	Fashion victims' behavior
Fetishism	Taking a fashion that is believed to review personal identity and social status
Blindness	Following a fashion in vogue indiscriminately without considering personal image or body shape
Excessiveness	Selecting clothes with too many beads or feathers that are overly decorative and rich in volume

로 그들의 패션 행동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를 물건에 의해 표현하려는 물신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둘째, 맹목성의 특성을 나타냈다. 맹목성이란 사실을 옳게 판단할 수 없으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Yon-sae institute of language and information studies, 1998). 패션에서 나타나는 맹목성은 시각적 맹목성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시각적 맹목성이란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받아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지각하지 못할 때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Beom, 2009). 즉, 사람들은 브랜드를 통하여 타인과 사회적으로 구별 짓기 원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표출함에 있어 브랜드에 대한 맹목적 숭배가 일어난다. 셀러브리티 패션 희생자들은 특정 브랜드나 상품에 대한 맹목성을 보인다. 셀러브리티 패션 희생자에게 나타나는 맹목성은 <Fig. 23>나 <Fig. 35>와 같이 파워슈더 재킷, 배기팬츠가 유행하던 당시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며, 유행하는 아이템을 너무 많이 선택하여 트렌드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통해 표출되었다. 또한, <Fig. 14>, <Fig. 18>, <Fig. 24>처럼 자신과 어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를 좋아함으로써 맹목성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패션 희생자의 내재된 특성인 맹목성은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차별성을 추구하는 성향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다.

셋째, 과도성의 특성을 나타냈다. 과도성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 정도가 지나침을 뜻한다. Han(2005)에 의하면 패션에서의 과도성은 극단적인 양적 풍부함, 거대성, 규모의 웅장함, 또는 연관성 없는 것들의 지나친 조합을 의미한다. 이처럼, 과도성은 양적인 과도성과 질적인 과도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셀러브리티 패션 희생자의 특성으로 나타난 과도성은 <Fig. 20>~<Fig. 21>, <Fig. 28>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깃털을 과도하게 장식함으로써 질적인 과도성이 표출되었다. 또한, <Fig. 35>와 같이 너무 많은 아이템을 착용함에 의해 양적인 과도성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셀러브리티 패션 희생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이러한 패션 스타일 상의 과도성은 절제와 절약의 아름다움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그들의 내면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일 것이다. 셀러브리티 패

션 희생자들의 내재된 특성을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패션 희생자들의 스타일 유형과 내재된 특성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Table 2).

V. 결 론

셀러브리티들은 대중에게 어필하기 위해 주목받기 위한 의복을 선택하지만, 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패션 희생자가 되곤 한다. 패션 테러리스트, 패션 루저, 위스트 드레서와 같은 패션 희생자들은 우리가 회피해야 하는 대상으로서 이들을 연구하는 것은 셀러브리티들의 스타일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패션 희생자의 스타일 유형을 분류해보고 내재된 특성을 고찰한 것으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패션 희생자의 스타일 유형은 첫째, 개인 체형을 무시하여 스타일링을 한 것이다. 스타일링을 할 때는 자신의 체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패션 희생자들은 대중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신체를 생각하지 않고 연출하였다. 이는 어깨가 넓은 것을 얇은 어깨 끈을 통해 부각시키고, 각선미가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매력을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 이미지를 무시한 스타일로 패션 희생자들은 귀여운 이미지를 가졌으나 섹시하게 스타일링 하는 등 자신과 어울리지 않게 착장하였다. 섹시하게 연출하려고 하는 것은 노출이나 바디라인을 드러냄으로써 주목 받기 위함으로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이미지를 고려하지 못한 채 과도하게 여성의 관능미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적절한 정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장식한 스타일이다. 패션 희생자들은 신체를 가리거나 산만할 정도로 장식이 있는 의상을 선택함으로써 시선을 끌었다. 이는 과도하게 비즈, 깃털, 퍼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과도하게 아 아이템을 착용한 스타일이다. 한국 셀러브리티 패션 희생자들은 시선을 주목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지나치게 여러 개 선택하여 패션 희생자가 되었다. 이는 강한 색상을 화려한 패턴과 함께 스타일링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아이템을 무차별적으로 착용한 스타일링, 너무 많은 아 아이템을 선택한 스타일링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사례고찰을 통해 한국 셀러브리티 패션 희생자들의 내적 가치 체계의 특성은 첫째, 물신성이다. 물신성은 고가의 의복이나 아이템을 착용하면서 사회적인 정체성을 표현하려는 성향을 내포함으로써 표출되었다. 둘째, 맹목성이다. 차별성을 추구하는 욕구로서 맹목성은 무차별적으로 유행이나 브랜드를 추구하는 것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셋째, 과도성이다. 과도성이란 정도가 지나침을 의미하며 양적으로 풍부하거나 장식적 요소가 되는 깃털, 비즈 등을 지나치게 부착한 옷을 선택함으로써 표출되었다. 이와 같이 패션 희생자들의 내재된 특성으로는 물신성, 맹목성, 그리고 과도성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패션 희생자들의 스타일 유형분류를 통해 내적 가치 체계의 특성을 도출함에 있어, 셀러브리티들의 스타일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가 시각적 자료에 있어 공식식상에 나타난 한국 셀러브리티로 한정된 점과 내적 가치 체계의 도출에 있어서 마케팅의 수단으로 고가의 협찬제품을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한계점을 가진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패션 희생자들의 패션 행동에 대한 심리학, 정신분석학적 연구 뿐만 아니라, 패션 희생자와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 유행을 선도하는 패셔니스타(Fashionista)에 대해 비교분석하는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References

- Beom, S. K. (2009, October 15). Psychology marketing column not selling product but model. *Naver*.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blog.naver.com/skbeom?Redirect=Log&logNo=130071531774>
- Boden, S. (2006). Dedicated followers of fashion? the influence of popular culture on children's social identities. *Media, Culture & Society*, 28(2), 289-298.
- Choi, E. Y. (2010, October 8). Indignity of Kong Hyo Jin and Kim Min Hui for worst dresser. *Edaily*.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starin.edaily.co.kr/news/NewsRead.edy?SCD=EA11&newsid=01085686593130952&DCD=A10302>
- Choi, H. M. (2011a, November 28). Who is the best and worst dresser. *Moneytoday*.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stylem.mt.co.kr/styview.php?no=2011112810161718332&type=1>
- Choi, H. M. (2011b, December 12). Who is the worst 'fashion terrorist' star. *Moneytoday*.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stylem.mt.co.kr/styview.php?no=2011121210140037044&type=1>
- Colorful spring, 'Che Jeong Ahn style' is cute and sexy. (2013, April 5). *Joins*.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142646&cloc=
- Fashion terrorist. (2011a, August 16). *Naver Korean dictionary*. Retrieved May 11, 2013, from <http://kin.naver.com/openkt/detail.nhn?docId=150382>
- Fashion terrorist. (2011b, February 6). *Urban dictionary*. Retrieved May 11, 2013, from <http://www.urbandictionary.com/define.php?term=fashion+terrorist>
- Fashion victim. (2013, October 4). *Wikipedia*. Retrieved October 4, 2013, from http://en.wikipedia.org/wiki/Fashion_victim
- Han, S. Y. (2005). *A study on glamour look expressed in fash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Hong, S. (2011, October 7). Oh In Hye-Kang Hye Jeong-Park Si Yeon etc who are the worst dresser a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ankook*.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reviewstar.hankooki.com/Article/ArticleView.php?WEB_GSNO=10006318
- Hyeon, W. J. (2012). *매력으로 리드하라* [Lead with charm]. Seoul: Bookin.
- Jeong, U. J. (2008, September 4). Actress dress 'best & worst' at chungmu-ro film festival. *Seoul*.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904603002>
- Kim, H. K. (2012, August 16). Hats are innocent. *Sisain*. Retrieved May 11, 2013, from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93>
- Kim, H. O. (2012a, November 22). Greed for nothing, a piece of clothing makes her humiliating. *Hankyung*.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bntnews.hankyung.com/apps/news?popup=0&nid=08&c1=08&c2=08&c3=00&nkey=201211211022103&mode=sub_view
- Kim, H. O. (2012b, July 20). Jeon Ji Hyeon-Han Hyo Ju-Hwang Jeong Eum When she wears dress, is she a terrorist. *Hankyung*.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bntnews.hankyung.com/apps/news?popup=0&nid=08&c1=08&c2=08&c3=00&nkey=201207181838003&mode=sub_view
- Kim, H. S. (2012, May 8). "Is co-ordinator Anti?" actress's pitiful fashion arouse ours curiosity. *Hankyung*.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bntnews.hankyung.com/apps/news?popup=0&nid=08&c1=08&c2=08&c3=00&nkey=201205072331223&mode=sub_view
- Kim, J. S., & Won, H. Y. (2013, January 3). 'Romantic, purity, sexy, chic' actress in 1st round tournament with 16 teams. *Joins*.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334206&cloc=

- Kim, N. D. (2007). *사치의 나라* [Nation of luxury]. Seoul: Miraebok.
- Kim, S. R., & Lee, K. H. (2011). The influence of celebrity and celebrity fashion on contemporary fashion.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9(1), 54-70.
- Kim, Y. J. (2013a, May 24). The best fashion, Soo Ji's skin exposure perceived as purity. *Joins*.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608221&cloc=
- Kim, Y. J. (2013b, February 15). The first greeting of actors, best and worst fashion in production presentation. *Joins*.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691017&cloc=
- Ko, Y. H., & Kwak, T. K. (2011). A study on the wannabe phenomenon of celebrity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1(1), 17-36.
- Korean internet neologism. (2013, December 16). *Wikipedia*. Retrieved December 16, 2013, from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9D%B8%ED%84%B0%EB%84%B7_%EC%8B%A0%EC%A1%B0%EC%96%B4#.E3.84.B9
- Lee, H. J. (2007). 과학사사전 [Science history dictionar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www.krm.or.kr/krmrts/search/detailView.html?m201_id=4b76f6dd1e7e1e76011eaa94d59b36af&local_id=4b76f6dd1e7e1e76011eaa94d59b36af&metaDataId=4b76f6dd1e7e1e76011eaa94d59b36af&linkingentry=2003-031-100121¤tGroup=fibr&selectedColls=Expression&category=Report&reportGubun=&dbGubun=FRBR&actionUrl=search/detailView&baseUrl=/krmrts&index=
- Lee, H. J. (2009, April 19). "Is co-ordinator anti?" fashion style without distinction of weather. *Sportsseoul*.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news.sportsseoul.com/read/entertain/687134.htm>
- Lee, H. K. (2012, July 20). 'What a back vinyl on red capet?' what is the worst fashion in pifan. *Sportsseoul*.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news.sportsseoul.com/read/entertain/1061514.htm>
- Lee, M. (2003). *Fashion victim our love-hate relationship with dressing, shopping, and the cost of life*. New York: Broadway books.
- Loser. (2005, April 6). *Urban dictionary*.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www.urbandictionary.com/define.php?term=loser>
- McFriedies, P. (2001). *The complete idiot's guide to a smart vocabulary*. New York: Alpha Books.
- Schiermer, B. (2010). Fashion victims: on the individualizing and de-individualizing powers of fashion. *Fashion Theory*, 14(1), 83-104.
- Shin, M. K. (2010). *슈즈 시크릿* [Shoes secret]. Seoul: Yedam.
- Song, E. J. (2008a, October 15). 'Best' Lee Yeong Ah vs 'Worst' Che Rim at seoul drama festival. *Sportsseoul*.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news.sportsseoul.com/read/entertain/611895.htm>
- Song, E. J. (2008b, November 2). Weekly dresser-'Best' Han Ji Hye vs 'Worst' Kim Ah Jung. *Sportsseoul*.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news.sportsseoul.com/read/entertain/619057.htm>
- Song, E. J. (2008c, November 16). 'Best' Lee Hyo Ri vs 'Worst' An Hye Gyeong at Mnet KM Music Festival. *Sportsseoul*.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news.sportsseoul.com/read/entertain/624584.htm>
- Song, E. J. (2008d, December 5). 'Best' Shin Min Ah vs 'Worst' Son Ye Jin at Korea film awards. *Sportsseoul*.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news.sportsseoul.com/read/entertain/632076.htm>
- Song, E. J. (2009a, August 8). 'Yoon Eun Hye', 'Koo Hye Seon' ... "Over fashion is poison of style!". *Sportsseoul*.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news.sportsseoul.com/read/entertain/734986.htm>
- Song, E. J. (2009b, August 29). 20's choice - 'Best' Han Ji Min vs 'Worst' Lee Hyo Ri. *Sportsseoul*.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news.sportsseoul.com/read/entertain/737506.htm>
- Song, E. J. (2009c, November 22). 'Best' Han Go Eun vs 'Worst' 2NE1 at Mnet Asia Music Awards. *Sportsseoul*.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news.sportsseoul.com/read/entertain/767103.htm>
- Song, E. J. (2010a, November 19). 'Best' Kong Hyo Jin vs 'Worst' Seo Woo at Korea Film Awards. *Sportsseoul*.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news.sportsseoul.com/read/entertain/897107.htm>
- Song, E. J. (2010b, December 10). 'Best' Lee Yeon Hui vs 'Worst' Nam Gyu Ri at Golden Disk Awards. *Sportsseoul*.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news.sportsseoul.com/read/entertain/903727.htm>
- Terrorism. (2013, October 7). *Wikipedia*. Retrieved October 7, 2013, from <http://ko.wikipedia.org/wiki/%ED%85%8C%EB%9F%AC%EB%A6%AC%EC%A6%98>
- The compilation committee of fashion professional material dictionary. (1997). *패션전문자료사전* [Fashion professional material dictionary]. Seoul: Korea dictionary research institute.
- Yonsae institute of language and information studies. (1998). *연세한국어사전* [Yonsae Korean dictionary]. Seoul: Doo-sandonga.
- Wehmeier, S. (2009). *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Korean diction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